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8.29(금) ~ 2025.9.4(목)

제공일시 2025 9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8.29(금) ~ 2025.9.4(목)

글로벌 정책

1. EU "선박 연료 탄소배출 세금 10년 유예" 검토...K-조선 '축각'

- 유럽연합(EU)이 해운·항공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화석연료 탄소세 적용 시점을 당초보다 10년 뒤인 2035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로이터가 입수한 EU 내부 문서 초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업계 부담 완화와 제도적 보완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음

- 국내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EU ETS나 '퓨얼 EU 마리티타임' 대비 직접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이어온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고부가가치 선종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하는 상황임

[\(뉴스1 2025.9.3\)](#)

2. 美 전기차 보조금 내년까지...K-배터리 "시간 벌었다"

- 미국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시점을 차량 '인도'가 아닌 '계약금 납부' 기준으로 변경했음

-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당초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계약만 체결하면 내년 인도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 확대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타임스 2025.9.1\)](#)

3. 美, 내년 中 ESS 배터리 관세 58.4%...국내 업체 점유율 확대 전망

-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40.9%에서 58.4%로 상향하기로 했음

- 현재 중국산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상호 관세·펜타닐 보복 관세가 합산돼 40.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포인트가 추가됨. 이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세액공제 요건이 중국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메트로신문 2025.9.2\)](#)

국내 정책

1. 2034년 i-SMR 첫 운전 전망...李 정부, 원전 르네상스 본격 시동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예산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3000억원을 포함, 총 9000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 육성 예산을 편성했음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개발을 총괄하는 기술개발사업단은 2025년 말까지 표준설계 인가 신청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서류를 완료할 계획임. 사업단은 2028년까지 인허가를 확보한 뒤 2034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투데이에너지 2025.9.3\)](#)

2. 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협조를 요청했음.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음

- 법안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하는 정부 공약에 따라,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민주당은 탈석탄 전환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 2025.9.1\)](#)

3. [李정부 첫 예산]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에 4.2조원 집중 투자(종합)

- 이재명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에너지 전환과 통상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 정부는 2026년도 첫 예산안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음. 이는 올해 대비 50% 증액된 규모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음

- 또한, 한미 간 마스가(MASGA)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70배 늘린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음

[\(연합뉴스 2025.8.29\)](#)

글로벌 기업

1. 소니, 협력사에 100% 재생에너지 요구...EU 순환경제 규제 대응 속도

- 소니가 중기 환경경영 계획 '그린 매니지먼트 2030(GM2030)'을 발표하고 2026~2030년 그룹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이는 그룹 차원에서 스코프 1·2 배출량을 60% 줄이고, 잔여분은 탄소 제거를 통해 상쇄하며, 스코프 3 배출량도 25% 감축하겠다는 방침임

- 회사는 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효과를 반영하는 한편, 협력사 관리 강화를 이번 계획의 핵심으로 삼았음. 소니는 이를 위해 주요 원자재·부품 공급업체에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공급망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감축 활동을 병행하도록 촉구했음

[\(임팩트온 2025.9.1\)](#)

2. "원전 최대 활용" 전환에...日 기업들 사업 확대 속도

- 일본 정부가 AI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해 원전 비중을 204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움

-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내년도 입사자 모집에서 원전 관련 인력을 역대 최대치인 2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음. IH도 원전 설비 관련 사업 인력을 현재 800명에서 2030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음

[\(서울경제 2025.9.1\)](#)

3. 이토키·히타치·토쿠야마, 태양광 패널 판유리 재활용 사업 추진

- 이토키, 히타치제작소, 토쿠야마가 태양광 패널 판유리를 회수해 사무용 가구 재료로 재활용하는 공동 실증 사업을 추진했음.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 수명 종료 후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는 2030년 이후를 대비한 업사이클 실험임

- 세 기업은 판유리를 재활용하면 새 유리를 제조할 때보다 탄소배출량을 최대 50%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5.9.1\)](#)

4. 美 핵융합 스타트업에 4조원 뭉치돈

- 미국 핵융합 기업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CFS)가 엔비디아 투자 부문 엔벤처스를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8억6300만달러(약 1조1700억원)를 신규 조달했음. 한국에서는 우리벤처파트너스가 1500만달러(약 208억원)를 투자하며 글로벌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음

- CFS의 누적 투자금은 이번 조달로 30억달러(약 4조1600억원)에 달했음. 이는 전 세계 민간 핵융합 기업 투자금의 약 3분의 1 수준임

[\(한국경제 2025.8.29\)](#)

국내 기업

1. 두산에너지빌리티, 美 초대형 화재 터졌다...뉴스케일 SMR '대형원전 6기분' 건설 계약

- 미국 테네시밸리전력청(TVA)이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뉴스케일과 6GW(72모듈)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약을 체결했음.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남동부 7개주에 걸쳐 추진되며, 약 450만 가구 또는 60개 대형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임
- 엔트라원 에너지가 SMR 상용화에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뉴스케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엔트라원 에너지 플랜트에 SMR을 적용하고 있음. 뉴스케일의 2대 주주로서 SMR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수조원대 공급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경비즈니스 2025.9.3\)](#)

2. SK이노 E&S 키캡처에너지, 美 미시간 BESS 프로젝트마저 '난항'

- SK이노베이션 E&S가 인수한 미국 그리드솔루션 기업 키캡처에너지(KCE)가 미시간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ESS 프로젝트가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음. 주민들은 화재 위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했음
- 이에 따라 KCE의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북미 사업 확장 계획과 수익 창출에도 차질이 예상됨

[\(더구루 2025.9.3\)](#)

3. 디와이폴리머, 포스코인터 손잡고 유럽에 재생 페트 독점 공급한다

- 환경기업 디와이폴리머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식품용기용 재생 페트(rPET) 수출을 위한 독점 공급·구매 협약을 체결했음
- 디와이폴리머는 국내 유일 국제 식품용 재활용 원료 인증 보유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재생 원료를 공급하게 됨

[\(서울경제 2025.9.3\)](#)

4. 美 빅테크 뚫은 포스코인터...6000억 핵심부품 수주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전기차 업체와 전략적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구동모터코어 300만 대를 공급하기로 했음. 구동모터코어는 희토류 기반의 핵심 부품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주에 성공했음
- 계약 규모는 100만 대당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총계약 금액은 최소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서울경제 2025.9.1\)](#)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8.29(금) ~ 2025.9.4(목)

제공일시 2025 9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독일, 탈원전 입장 선회...프랑스와 원자력 포함 8개 분야 경제협력 합의

- 독일과 프랑스가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롱에서 열린 제25차 프랑스-독일 각료이사회에서 경제·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8개 분야 협력 아젠다를 채택했음

- 이번 합의는 국경 간 전력망 신규 건설, 서남부 수소 파이프라인(Southwestern Hydrogen Corridor) 재개, 전력망 요금 조율, 배터리 탄소발자국 기준 마련, 녹색 규제 공조 등 전방위 협력을 포괄했음

- 합의문에는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비차별 원칙'이 명시돼, 원자력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EU 차원의 금융 지원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

- 독일은 2023년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며 사실상 탈원전을 완수했으나, 러시아 가스 의존 축소, 에너지 가격 급등,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원자력 배제를 고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음

- 로이터는 독일의 이번 태도 변화를 EU 전력시장 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원전을 사실상 인정한 중대한 신호로 평가했음

- 양국은 지난 수년간 에너지 집약적 산업 보조금, 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략을, 프랑스는 원전 비중 유지와 제도적 인정 확대를 고수해 왔음

- 그러나 에너지 가격 급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속도 제고 등 공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양국이 공조에 나서게 됐음

- 독일은 지난 7월에도 EU 집행위원회가 2028년 이후 적용할 차기 예산안에 원전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을 때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원전 금융 지원을 전면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했음

- 업계는 이번 조치가 원자력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원전 기술 기업 프라마툼은 그간 프로젝트 금융 조달의 안정성을 위해 EU 차원의 명확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가 2040년 기후 목표에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만큼, 향후 EU 법 개정이나 전환기금 등 금융 메커니즘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음

[\(임팩트온 2025.9.2\)](#)